

바이오식품연구소 기술 이전

고창지역 7개 업체 선정 건강즙·액상차·복분자 음료 등 개발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역 업체들의 현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조 기술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업체에 이전했다.

지난 22일 오후 고창부안축협 한우 명품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연구소의 기술 이전식은 박우정 군수와 지역 식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올해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7개 업체를 선정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에 힘써왔다.

연구소에서 추진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고창항도영농조합법인(대표 김창수)에서는 고창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장생홍도라지와 더덕을 이용한

건강즙을 개발했다.

또 약선드림(대표 김용남)은 흑단삼차를 개발했으며, 하랑영농조합법인(대표 곽춘근)은 블루베리 열매와 잎을 이용한 액상차를, 고인돌유기농센터(대표 김상관)는 복분자를 이용한 청국장 낫또를, 두레영농조합법인(대표 정모너)는 초식잡을 이용한 장류를, 큐어팜(대표 정소희)은 도라지와 더덕을 이용한 복분자 음료를, 쟁구네농장(대표 이상용)은 단호박을 이용한 식혜를 개발해 기술이전을 통한 판로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예정이다.

연구소에서는 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연구소 기업지원 사업을 통

해 개발된 기술은 현장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로 사업화를 통해 지역 식품 산업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생활권보전지역 고창군의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라는 감점을 부각시켜 어려운 식품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 농업인과 식품기업들이 이를 사업화하고 업체와 고창군이 더욱 성장·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열려

춘향·이도령 등 응용한 다양한 캐릭터 선보여

최근 남원시청 1층 강당에서는 '제1회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크리스마스 장터'가 열렸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관광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원시 공예작가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제1회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는 총 26개 업체가 참여하여 한지, 옷칠, 먹거리, 춘향·이도령 캐릭터를 응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옷칠공예를 이용한 춘향·이도

령 목걸이와 디디이, 부흥식도, 한지 공예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 자개나 나무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공예품들이 특히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옷칠과 자개를 이용한 체험 등도 무료로 진행되어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선보임으로써 남원시의 관광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펼쳐진 크리스마스 장터에는 향단이 수제 초코파이, 춘향뽕부터 흙으로 빚은 토우

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남원시관광협의회의 위원장(배종철)은 "이번 행사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과 먹거리를 집중 발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관광도시로 성장하였으면 한다."라고 전하였다.

한편, 3개 부분(금상, 은상, 동상) 총 6백만원의 시상금이 걸린 '제1회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의 심사 결과는 12월 26일 개별연락과 남원시관광협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과수산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상호 정보공유·추진 방향 등

임실군은 지난 22일과 23일 임실엔과수사업단 및 복숭아, 사과, 배 재배농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부안 변산 일원과 고창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과수산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는 전북도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임실엔과수증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과수사업단, 생산농가 등 상호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 추진 방안 등 과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은 과수가공 산업 소비시장 변화 대응 방안, 사업단 마케팅 전략, 임실엔과수증복합화 사업 발전 방안 등 전문가의 강의를 비롯해 사업주체들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은 임실과수 산업의 2단계 발전 방안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배리류를 활용한 가공상품 생산



계획에 따라 고창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를 방문해 연구개발 방향과 생산시설을 벤치마킹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과수 농가 김모씨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수증복합화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주체들과 협정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수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행정기관, 생산농가가 합심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효영 기자

순창군, 친환경사업 평가 등 상복 터져

군정운영 성과 인정 받아

순창군이 2016년 친환경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올해 한해 각종 평가에서 28개 상을 휩쓰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군은 보건복지, 문화예술, 일반행정, 관광 등 행정 전 분야에서 고투 상을 수상하며 군정운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2016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자활사업 평가 우수기관상, 출산전환정책 평가 우수기관상, 결핵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상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6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 관광산업발전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지역문화지구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군 단위 탑10에 선정돼 문화강군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고 대한민국 축재콘서트 대상 경제부분 대상, 한국관광대상 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관광정책 의 성공적 추진도 인정 받았다.

이외에도 2016년 민선 6기 공약이행 평가 우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4위 등 원칙과 약속을 중시하는 황숙주 군수의 군정 철학이 반영된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 보통교부세 22억원 확보, 임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5억, 산림분야 합동평가 포상금 6백만원, 친환경 사업 최우수기관 2백만원 등 평가를 통해 총 27억 9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우수기관 선정도 클린순창 운동의 성공적 추진 결과로 눈여겨 봐야할 성과다.

황숙주 군수는 "올 한해 전 직원이 오직 지역의 발전이라는 목표 하나를 보고 땀 흘린 결과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군민행복을 위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잘사는 순창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 곳곳 어려운 이웃 돕기 잇따라

쌀 128포 · 수익금 20만원 · 라면7박스 등 기탁

익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 되고 있다. 팔봉환경 사랑회(회장 신문식)는 지난 22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128포(20kg단위 환가액 450만원)를 팔봉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팔봉환경 사랑회는 128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날 각 세대를 찾아다니며 쌀을 전달했다.

신문식 환경사랑회 회장은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도 다 행기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모현동에 소재한 굿즈 어린이집(원장 김지연)은 12월 22일 자체 음악회를 통한 수익금 일액과 물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모현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굿즈 어린이집 아동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 해 동안 연습해 온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팝콘 등을 판매한 수익금 20만원과 쌀1포, 라면7박스 등

총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기탁했다.

황등면 의용소방대(대장 진섭)는 어려운 이웃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2일 황등면사무소에 쌀 10kg 50포(100만원 상당)를 기탁하고, 경로당 2곳에 난방유류비(40만원상당)를 지원하고 경로당 1곳에 화재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다.

기탁한 백미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용동면 고창교회(목사 허태희)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쌀(20kg) 30포를 용동면에 기탁했다.

고창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기탁하고 있다.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전북도 지부(회장 소익섭)는 익산시 저소득가 4세대에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무지개봉사단(회장 서서원) 역시 평화동의 어려운 4세대를 찾아 연탄 봉사를 실시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김병석 남원시협의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통일 관련 신규사업 개발 등



김병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장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국민훈장 및 의장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국민훈·포장 45명을 비롯해 30개 지역 협의회에 의장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병석 협의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김병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회장은

제16기 및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 재임 동안 북한탈북주민 통일안락음이기, 흙으로 여는 통일, 통일시대 시민교실등 다양한 통일 관련 신규사업을 개발한 것은 물론, 관련 예산 추가 확보에도 앞장서는 등 남원시협의회 기능역할 재정립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석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 전반에 관한 관심과 건의는 물론, 지속적인 통일활동 및 미래통일 준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통령표창은 정영희 여성분과위원장, 전북도지사표창 조태봉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미숙 위원이 각각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은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N치즈 요리 체험관 개소

임실군은 지난 23일 '임실N치즈 요리 체험관' 개소식을 갖고 다양한 치즈요리에 대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날 심민 군수를 비롯해 서인순 임실치즈음식문화연구원장, 회원, 교육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치즈 요리 체험관은 치즈를 음식문화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음식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 치즈 관련 창업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사)임실치즈음식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임실N치즈를 활용한 각종 요리와 제과제빵 현장 실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요리판매를 병행 실시해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비촉진을 도모한다.

심민 군수는 "치즈음식문화화 중

심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치즈요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관련 업종의 창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실N치즈 명성에 걸 맞는 치즈요리를 맛보고 즐길 수 있어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 가치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실N치즈를 활용한 요리 32종과 레시피 북을 보급하는 등 치즈음식 문화 저변 확산과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임실엔치즈·낙농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체험관광 활성화를 식품과 연계·발전시켜 음식관광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임실=진효영 기자

국립문인사

고창군 노후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고창군이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규차(승합·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8.) 국회 통과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감면대책의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승합·화물)차량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노후 차량을 말소 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한 차량이다.

감면 신고방법은 대상자가 군청 차량등록담당부서에 감면기간에 먼저 노후차 폐차 말소를 등록하고 신규차 등록 후 관련 증빙자료를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감면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후 경유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 권장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분석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8주(11.20~26) 7.3명/(외래환자 1,000명), 49주(11.27~12.3) 13.3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한 후, 50주(12.4~12.10) 34.8명(잠정치)으로 급증하였고,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이 107.8명으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인플루엔자 환자는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 손 자주 씻기, 기침예절 준수(휴지, 옷감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마스크 착용)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의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 등 집단시설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동중동문회, 장학금 전달

전주시청 임실동중동문회(회장 곽효섭)가 모교인 임실동중을 찾아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모교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임실동중에서 열린 전달식은 곽효섭 회장과 2명이 임실동중(교장 양기수) 교장실을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키우는 모범 학생에게 전해 달라며 사랑의 장학금 12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장학금은 임실동중 졸업생으로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28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인 뜻을 모아 마련했다.

곽효섭 회장은 "장학금을 준다고보다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기수 교장은 "모교 후배들에게 이런 따뜻한 점을 배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모범학생 6명을 선발해 1인당 20만원씩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효영 기자